



정선아리랑제, 한민족 情恨이 세계의 노래로 아리랑 발상지에서 축제 향연

글 임형두 기자

어떤 자리에서 외국인을 만났다고 하자. 그 외국인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무엇이랍니다?”

당신은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다. 자랑스러움에 어깨까지 으쓱거리며 말이다. “그야 물론 ‘아리랑’이지요!”

호기심 넘친 외국인이 다시 묻는다. “아리랑’은 무슨 뜻이래요?” “.....”

말문이 막힌다. 얼렁뚱땅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점입가경. 궁금증이 더해진 외국인의 질문은 계속된다. “그 아리랑은 언제, 어디서, 왜 생겼대요?” 급기야 당신은 얼굴이 붉어진 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쥐구멍이라고 찾고 싶어질지 모른다. 화장실이 급하다며 황급히 자리를 뜰 수도 있다.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다. 10월을 상달이라 이르며 햇곡식을 신에게 올렸던 조상들의 속 깊은 마음이 헤아려지는 때. 이 좋은 계절에 겨례의 큰 올림인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표축제가 강원도 산간에서 열린다.

이름하여 정선아리랑제. 한글날인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정선군 정선읍의 아리랑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40회째인 역사와 전통의 아리랑축제. 제3회 세계대한민국아리랑축전을 겸하고 있기도 하다.

정선아리랑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고장의 전통소리였다. 일제시기를 거치며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희망을 되찾으려는 민중의 소리가 됐고, 지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세계인의 노래로 발돋움하고 있다.



장장 40년 세월 동안 이어져온 정선아리랑제는 아리랑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세계적 민요축제로 거듭나고자 한다. 주제를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로 내건 이윽도 바로 그 때문.

축제를 계기로 아리랑의 발자취를 더듬어 올라가보자. 나무도 뿌리를 알고 나면 줄기와 잎과 꽃이 달리 보이듯이, 노래 역시 그 연원을 살피고 나면 내용과 음률, 여운이 더욱 크게 울려오기 때문이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주게/ 싸리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 그리워 나는 못 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정선아리랑’ 중)

앞서 언급처럼 아리랑은 한반도의 중동부 심산유곡의 정선 땅에서 오래 전부터 불려온 향토민요다. 아리랑이 언제부터

불렸고,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저런 설들만 분분할 뿐.

아무튼 정선지역에서 전승돼오던 아리랑 가락은 고려 말부터 가사를 갖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곳으로 온 고려 충신 칠현(七賢)이 전통가락에 가사를 붙여넣기 시작한 게 그 시원이라는 것이다.

이 아리랑은 시대에 따라, 곳에 따라 가사가 자유롭게 붙여져 현재 채록된 정선아리랑 가사만도 5천500수가 넘는다. 다시 말해 아리랑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셈. 참고로, 전국적으로 채록된 아리랑 가사는 무려 2만 수에 이른다.

그렇다면 아리랑이 언제, 어떤 연유로 전국에 퍼져 나가게 됐을까? 정선아리랑과 더불어 아리랑을 대표하는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이 생긴 배경과 과정이 궁금해진다.

백두대간의 정선에서 태어난 아리랑은 1865년부터 1872년까지 계속된 경복궁 중수를 계기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각지에서 동원된 인부들은 문경 땅에서 베어져 온 박달나무를



깎고 다듬고 세우며 겪는 삶의 고단함과 애절함을 덜기 위해 정선지역 인부들이 흥얼거리는 강원 아라리를 따라 불렀다.

힘겨운 공사장에서 강원 아라리의 하나인 '문경아리랑'으로 위안을 얻었던 인부들은 부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현지 음악어법과 정서에 맞게 변이시켜 생활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은 이렇게 탄생한다. 예컨대, 진도아리랑에 난데없이 '문경새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복궁 중수공사 때 문경의 박달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한일병합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 아리랑은 상실감을 담아내는 대표적 노래로 재탄생한다. 이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환골탈태한 뒤 박승희 원작의 연극 '아리랑', 최승희의 춤 '아리랑환타지', 가곡 '아리랑강남', 유행가 '아리랑동동' 등 모든 장르로 퍼져나간다.

특히 해외 동포들에겐 망국의 한을 달래고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노래였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민족의 노래'로 탄탄히 자리 잡았다. 남북공연이 되든, 국제경기가 되든 남과 북이 '단가'처럼 함께 부르는 노래가 늘 아리랑인 것은 이런 연원을 갖고 있다.

100여 년 전 정선에서 퍼져 나간 아리랑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애창되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 브랜드가 돼 있다. 일제강점기엔 나라와 고향을 떠나간 이들의 가슴속 노래로 국외에 확산됐고, 현대에 와서도 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애잔한 향수를 자아내는 감흥의 민요로 강인한 생명력을 떨친다. 일종의 디아스포라(Diaspora) 문화가 된 셈이다.

특히 2008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과 서울에서 차례로 아리랑을 연주해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



록돼 세계화를 향해 일로매진하고 있다. 비봉산 정선 아리랑비에서 알 수 있듯이 산간벽지의 이야기인 아리랑이 이제는 한국의 노래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노래로 불릴 만큼 자랑스러운 문화어가 돼 있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40주년을 맞아 아리랑의 역사적 의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정선아리랑을 부르며 즐기는 '명석아리랑'을 신설하고, 5천500수에 이르는 정선아리랑의 가사 쓰기 공모전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전국의 민속극과 공연이 어우러지는 민속극 한마당과 전국 아리랑 장사씨름대회도 열린다.

진도아리랑과 밀양아리랑이 정선아리랑과 어울리는 교류전 무대, 카자흐스탄과 필리핀, 중국의 민요가 함께 불리는 무대,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창

대회도 펼쳐진다. 수상곡 '뗏목아리리', '명석아리리'는 정선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이다.

정선아리랑제위원회는 "지난 40년이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동력이었듯이 앞으로는 한국의 아리랑을 세계의 아리랑으로 발전·승화시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족의 정과 한이 깃든 대표 민요 아리랑.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우리 민족에겐 아픔을 치유하고 위안을 얻고 희망을 찾는 어머니 품과 같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그 품에서 대동과 해원상생을 꿈꾼다. 함께 듣고 노래할 때 모두가 절로 하나됨을 느낄 만큼 아리랑은 신묘한 공감력을 지니고 있다. 정선아리랑제는 그 힘을 다시금 느껴보는 계기다.

축제의 달 10월, 곳곳에서 '팡파르'

10월이 되면 이 노래가 예식장이든 동창회이든 마치 단골곡처럼 청량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울려 퍼진다. 가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중략)…// 네가 있
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10월은 축제로서도 아주 멋진 달이다.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다. 국화가 만발하듯이 축제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롭게 막을 연다.

워낙 많은 까닭에 문화관광축제 중심으로 살펴보자. 모두 44개에 이르는 2015문화관광축제 중 3분의1이 넘는 15개 축제가 10월에 몰려 있다.

최고 영예인 '글로벌육성축제'의 경우 모두 3개 중 보령머드축제(7월 개최)를 빼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0월 초를 빛낸다.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 최우수축제인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추억의 7080총장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이천쌀문화축제도 10월에 선보이며 우수축제인 창원과가파국화축제, 순창장류축제도 방문객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망축제로는 한성백제문화제, 광산우미리축제,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경주 신라소리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강원고성명태축제가 있다. ●



02 순창장류축제

장류와 발효 음식의 진수를 맛보는 축제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고창장민속마을과 순창읍내 일품공원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은 체험과 공연, 전시 등 7개 분야 73개 종목. 간장, 고추장, 된장과 이들 장류를 이용한 쌍장, 김치, 쿠키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고, 옹기와 인절미, 비빔밥, 떡볶이, 장아찌 김밥 등을 만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물론 당나귀 체험, 가족대항 전통집 만들기 같은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 063-652-9302. www.jangfestival.co.kr



01 청원생명축제

옛 청원군 시절부터 개최돼 오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잔치. 2~11일
오침을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등에서 열린다. 농일을 끄는 작품 중 하나는
시민 소망이 담긴 대형 '군집갯벌 조형물'. 조형예술가 김해곤씨의 작품으로
길이 48m 높이 6m짜리, 길이 70m 높이 6m짜리 두 점이 전시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이후 두 번째 축제.

☎ 043-201-0253~4. bio.cheongju.go.kr

03 대구국제오페라축제

8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3회째. 개막작은 베르디의 '아이다'로 장성영이 연출을 맡고 베를린 국립음대 교수인 크리스티안 에발트가 지휘봉을 잡는다. 독일 비스바덴국립극장이 처음 내한 공연하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 영남오페라단이 선보이는 베르디 '리골레토',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하는 비제 '진주조개껍지', 대구오페라하우스 창작오페라 '귀각국기'도 무대에 오른다.

☎ 053-666-6000. www.daeguoperahouse.org

04 김제지평선축제

7일부터 닷새간 전곡 김제의 벼골제 일대에서 열린다. 프로그램은 모두 70개. 올해로 17회를 맞는 축제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 지평선의 끝없는 이야기’다. 야구이 썰매장 짓기, 황금돌넉 메뚜기 잡기, 황금돌넉 달구지여행, 도롱이 윷놀이, 벼 수확과 탈곡, 새끼 꼬기, 새총 쏘기, 허수아비 체험 등 다양한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063-540-3031~6. festival.gimje.go.kr



05 광주 추억의 7080총장축제

시대와 지역 등이 소화를 이루는 '추억과 어울림'을 주제로 한 총장축제는 7~11일 광주광역시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거리 등에서 마련된다. 올해로 12회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전당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추억이라는 공통의 소재를 통해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적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 062-608-2421. www.cjr7080.com.



06 진주남강유등축제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주제로 1~11일 경남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남강을 누비는 7만 개 유등에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7만 민·관·군을 추모하는 의미가 담겼다. 시민들 따라행렬, 고구려, 초혼제, 수성불꽃놀이, 소망등 달기, 유등 띄우기, 세계풍물등 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 055-761-9111. www.yudeung.com

